

발표요약문

네 안의 휴탈리티 등불을 밝혀라: 본질적 시선으로 나와 일과 삶 들여다보기

박정열

[AI시대 사람의 조건, 휴탈리티] 저자

Keywords: 휴탈리티, 의미체계, 건강과 성숙, 본질적 시선, 성찰 습관, 변화와 변질

우리가 가진 인간본연의 아날로그적 모습이 결함으로 간주되고 기계의 디지털적 완벽함이 숭상 받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질'을 말해야 한다. 우리에게 기계가 없는 특유의 본질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탁월한 기술력으로 세상에 없던 것을 완성도 높게 만들어내는 탤런트talent와, 기존 세상과 미래에 가질 새로운 의미 체계를 만들어내는 휴머니티humanity가 그것이다. 이 둘이 온전히 융합된 휴탈리티huality의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주체적으로 마주할 동력과 건설적인 미래 방향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는 균형을 잃은 채 휴머니티보다 탤런트를 더 숭상해 왔다.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에는 탤런트가 더 주효함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건강과 성숙을 잃었다. 건강과 성숙 없이 미래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은 없다. 최근 우리는 미래에도 번영과 풍요를 계속 얻기 위해 미래무대 주인공 자리는 AI에게 내주기라도 할 태세다. 근대 산업화를 지나며 나타났던 '인간 소외'의 최신 버전을 다시 데자뷰하고 있는 듯하다. 스스로를 소외 시킨 상태에서 미래와 마주하기 위한 주체적 동력과 바람직한 방향을 결코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무엇보다 본질적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는 성찰이 필요하다. 작금의 팬데믹은, 방향없이 그저 '더 많이'만을 외쳐 온 번영과 풍요 추구의 잔걸음을 멈추고 왜를 물으며 본질을 회복할 기회를 주고 있는지 모른다. 변질 되지 않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 안의 휴탈리티 등불을 밝히는 성찰 습관들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늦기 전, 우리는 제대로 된 희망을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다.